

“봉사 가치 확산...미래세대 함께하는 로타리로”

김운세로타리코리아이사장 취임 100일

전남광주 출신 첫 이사장... 100주년 행사 준비 박차

디지털 플랫폼 구축 청소년·청년 회원 ↑ ...10만명 목표

30여년 자신 봉사 여정 담은 ‘로타리안 김운세’ 출간

“한국로타리 100주년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로타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운세 (사)로타리코리아 이사장 (사진)이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지난 7월1일 취임한 김 이사장은 전남광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배출된 로타리코리아 이사장으로 내년 한국로타리 100주년을 앞두고 중책을 맡은 만큼 회원 확대와 디지털 소통 기반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김 이사장은 한국로타리 회원 10만명 확대와 월간 ‘로타리코리아’의 디지털 전환을 주

요 과제로 꼽았다. 현재 로타리코리아는 매달 6만5천부가량의 월간지를 발행하며 전국 로타리클럽의 봉사활동과 국제로타리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그는 기존 인쇄 매체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유튜브와 동영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봉사 사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도 중요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회원들의 선행과 봉사활동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해 로타리의 가치를 더욱 널리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아 자신의 봉사 인생을 담은 책 ‘로타리안 김운세’ 출간과 도서 기증 행사도 진행했다.

지난 9월12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대산홀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는 유은하원

총동문회와 국제로타리 3710지구, 주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사무소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화환 대신 책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는 ‘책화환’을 받아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지난 9월30일 서울 한국로타리회관에서 도서 기증 전달식을 열고 인터랙트·로타렉트 클럽에 책 500권을 전달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로타리의 ‘초아의 봉사’ 정신을 이해하고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큐멘터리 PD 출신 조철현 작가가 집필한 ‘로타리안 김운세’에는 광주상고 아간부에서

주경야독하던 청년이 직업교육 전문가로 성장하고, 1997년 로타리에 가입한 뒤 30년 가까이 국내외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온 과정이 담겼다.

그는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를 역임하며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의료봉사를 펼쳤으며, 우즈베키스탄 노동부 장관 정책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민간외교에도 기여했다. 또 1992년 설립한 호남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며 직업교육 발전에 힘쓰는 공로로 2015년 석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30년 가까이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미래세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청소년과 청년들이 봉사의 즐거움과 가치를 알고 로타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중 한국로타리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기를 맞은 만큼 어느 때보다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원 10만명 시대를 열고한국로타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복기자



광주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네팔 수해 성금

대한적십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지사는 8일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부설 KTL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자와 직원 등 98명이 네팔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258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됐으며, 참여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네팔의 재난 피해에 책임을 함께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모금에 나섰다.

특히 평소 복지서비스와 지원을 받던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기부에 참여해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센터 관계자는 “네팔의 재난은 환경을 지키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늘 지원을 받던 위치에서 벗어나 우리도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 주체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연상기자

애플B유치원, 국립광주과학관 ‘모두의 AI’ 특별전 관람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로봇 움직임 경험

애플B유치원 원아들이 8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진행된 ‘모두의 AI(On-AI)’ 특별전을 관람하며 우리 생활 속 가까워진 인공지능의 세계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별전은 인공지능(AI)의 원리를 단순히 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보고·듣고·움직이고·만들어보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AI를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다.

아이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AI 기술과 로봇의 움직임을

직접 경험했다. 특히 사람과 대화하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가까이에서 만나며 인공지능이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고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음악 제작 등 다양한 전시를 통해 인공지능이 창작과 생활 속에서도 활용되고 있음을 관찰했다.

이번 특별전 관람은 원장님의 따뜻한 배려로 입장료 전액을 지원받아 아이들이 좋은 기회를 통해 AI와 미래 과학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번 견학을 통해 아이들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애플B유치원 원아들이 8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진행된 ‘모두의 AI(On-AI)’ 특별전을 관람한 가운데 원아들이 AI dance 로봇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해하고,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애플B유치원은 아이들이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학습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채만기자



무학초 ‘소담소담 무학 꿈쟁이들’ 출판기념회

무학초등학교는 8일 무지개 팩토리과 교내 북도 갤러리에서 유치원 및 전교생, 교직원, 학부모,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집 ‘소담소담 무학 꿈쟁이들’ 출판기념회와 사회화전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이 일상과 상상력을 담아 직접 쓴 동시집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고, 학생 창작 시화 작품 30점을 교내 북도 갤러리에 전시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창작의 기쁨과 성취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출간된 첫 동시집 ‘몽글몽글 무학 꿈쟁이들’에 이어 진행된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동시집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 상영과 학생들의 자작시 낭독회가 열려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

을 선사했다.

학생들은 교사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시 쓰기 프로젝트, 깊이 있는 온작품 읽기 활동을 통해 시인이 돼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문학적 감수성을 키워가고 있다.

정성숙 무학초 교장은 “사계절 자연 속에서 학생들이 창작의 기쁨을 누리며 따뜻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출판기념회와 함께 개막한 ‘소담소담 무학 꿈쟁이들’ 사회전은 오는 23일까지 교내 북도 갤러리에서 운영된다.

/김재정기자



목포상의, 금융기관장 초청 中소 지원 머리 맞대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가 지역 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 주요 금융기관장들과 머리를 맞댔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지역 경제 및 금융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성장지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정현택 목포상의 회장을 비롯한 상공위원과 김준철 한국은행 목포본부장, 주요 시중은행 센터장·지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남부지역 경제·금융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자

금 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등의 애로사항을 비롯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제도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현택 목포상의 회장은 “지역 기업들은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판로와 인력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며 “이러한 패일수록 금융기관과 기업, 지역사회가 서로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지역 경제 정책과 기업 지원에 적극 반영되고 기업과 금융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광주서부교육청, 신중 학교폭력 ‘야차룰’ 예방 캠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8일 동명중학교 정문에서 신중 학교폭력 ‘야차룰’ 예방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 우려가 있는 ‘야차룰’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 신중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차룰’은 학생 간 격투 강요, 합의하에 격투한 뒤 촬영·유포, 촬영물을 빌미로 금전 요구 등 신중 학교폭력 유형이다.

캠페인에서는 서로 합의한 격투라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격투 제안·부추김, 관전·심판, 촬영·유포 등에 가담해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안내했다.



백기상 서부교육장은 “학교폭력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학생과 학교가 위험성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을 면밀히 살피고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해 안전한 학교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여수해수청, 도선·예선 분야 규제 개선 간담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청사에서 불합리한 도선·예선 분야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예인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인선 종사자 안전 교육도 실시했다.

정태성 청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여수항도선사회, 한국예선협회등조합 여수지부, 관내 예인선사 안전관리 실무자와 예인선 종사자, 선박안전관리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이어 예인선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인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사고 예방법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수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도선·예선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며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안전 교육도 지속 실시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작업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기자

결혼

▲윤재식(前 담양중앙파출소장)·이애란씨 차남 부현군, 여민우·임미옥씨 장녀 아현양=10월9일(금) 오후 2시30분 송도 메리빌리에 셀레스메리(인천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16번길 33-1), 032-864-5500·010-3807-4479.

▲故 최지한·김덕임씨 아들 청현(담양농협 추성로지점 계장)군, 임홍준(前 담양군 산림정원과장)·조완금씨 딸 진희(담양군 행정과 정보통신팀 근무)양=10월11일(일) 오후 12시30분 광주 드메르웨딩홀 2층 CN홀(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032-228-0000·010-2827-6308.



▲서동교(주식회사 팍죽 대표이사)·박경옥씨 장녀 서영주(주식회사 팍죽 실장)양, 신단식·이미령씨 장남 신수호 군=10월17일(토) 낮 12시 서울 신리호텔 다이너스티홀, 010-2923-2388(서동교)